**[퍼온 글-간증] 악한 영과의 싸움!**

****

† [퍼온 글][간증]악한 영과의 싸움!

경기도의 한적한 어느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

그 교회에는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셨고

장로님 두 분과 60여명의 장년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.

그 마을에는 30을 갓 넘긴 귀신들린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.

1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안전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

외모도 고와서 시골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에게는 늘 자랑거리였고

든든한 기둥과 같은 딸이었습니다.

그런데 그 아가씨가 3년째 사귀던 애인한테 실연을 당하고서는

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슬퍼하더니

그만 귀신들리고 말았습니다.

그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그 딸자식 하나를 모든 공을 들여 키우셨고

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지경이 됐으니 그 좌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

마침 그 교회는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하면서,

그 귀신들린 아가씨를 이번 기회에 치유할 수만 있다면

온 동네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서

그 아가씨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

부흥회를 앞두고 그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 한 분과 남녀 집사님 한 분씩을 데리고

네 사람이 그 집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.

세 분은 마당에서 기다리고 남자 집사님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.

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.

방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가보니 그 아가씨가 혼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.

그 집사님이 말을 몇 마디 건넸더니 아가씨가 다짜고짜 남자집사님을 집어던지다시피

밀어뜨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마당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

평소에 처녀가 그렇게 힘이 셀 것 같지 않은데

괴력이 어디선가 솟아나서 건장한 남자를 집어던져 버린 것입니다.

그 남자집사님은 아파 죽겠지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

이번에는 장로님이 나섰습니다.

남자집사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잔뜩 겁을 집어먹었지만

내색은 못하고 슬그머니 방안에 한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순간 그 아가씨가

와락 덤벼들어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.

이제 목사님 차례였습니다.

목사님이 방안에 들어서자 그 아가씨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.

목사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.

선 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

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!

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아가씨가 막 고함을 질러대더니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께 덤벼들었습니다.

목사님을 문 쪽으로 몰아세우더니 확 밀쳐버린 것입니다.

결국 목사님도 창피만 당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

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세 남자가 처녀 하나 어떻게 못해보고 다 나가 떨어져버린 것입니다.

마침 그때 그 교회 여고생 하나가 지나가다가

목사님과 장로님, 집사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.

그 여학생은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, 새벽마다 하교할 때마다 교회당도 들르며

집에서 작은 골방에서도 무릎 꿇어 열심히 기도하던 학생이었습니다.

일주일이면 사나흘을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철야를 할 정도로

기도생활에 열심이어서 온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학생이었습니다.

이야기를 대강 듣더니 그 여학생은 그렇지 않아도 저 언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면서

자기가 들어가보겠노라고 나섰습니다.

어른들이 말렸지만 그 학생은 자신은 전혀 무섭지 않다면서 기어이 뿌리치고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.

마당에 서있던 네 사람은 저 여학생이 틀림없이 봉변을 당하고 말텐데

얼굴을 할퀴지나 않을까, 남자들도 다 당하고 말았는데

저 가냘픈 여학생이 어디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.

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여학생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뿐,

그 귀신들린 아가씨는 찍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것입니다.

장로님이 약간 안도감이 생겨서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.

실로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.

여학생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,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고

벌벌 떨면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.

그러더니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

조금 후에 일어난 아가씨는 제 정신을 회복을 했고 근 1년 동안 귀신 들려

처참하게 망가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

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.

마침내 그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마지막날 간증을 자청한 그 아가씨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.

"맨처음에 남자 집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

보니까 그 손에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.

그 나뭇가지로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그 집사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집어던져 버렸습니다.

두 번째로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손에 조그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서

장로님을 밀쳐버렸습니다.

그 다음 목사님은 큰 칼을 한 자루 들고 들어오셔서 저를 위협했습니다.

그런데 그 칼은 무도 베기 힘들 정도로 녹이 슬어 있어서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고

쉽게 바깥으로 쫓아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.

네 번째로 여학생이 들어왔을 때입니다.

그 학생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.

손에 파란 불이 맹렬하게 타고 있는 불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

머리가 깨질 뜻이 아프면서 온 몸이 사시나무 떨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

그러다가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서 있질 못하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.

저는 제가 온전해진 뒤로 그 여학생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

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장로님, 목사님, 신학박사도 아니고

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.

그래서 그 뒤로 저는 매일 두 시간 이상씩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

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." 할렐루야!